

광주·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 예고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등 요구 노조 투표 80%대 찬성 가결 15일까지 교섭, 타결 가능성도

광주·전남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파업)를 결의했다.

수차례 교섭에도 2018년 임금·단체협약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교섭이 완료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는 5일 2018년 임금·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광주 88.6%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남 투표결과도 87.6%로 나타나 파업을 사실상 예고하고

있다.

광주지부는 각 시·도 지부별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율 77.4%에 92.0%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노조에는 급식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교무·과학·전산 실무사, 사서·특수교육지도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광주는 비정규직 노동자 4500여명 중 3500여명, 전남은 6000여명 중 5500여명이 노조원이다.

이들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주된 이유는 처우 때문이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기본급·근속수당을 올리고 근속수당 가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근속수당을 월 5만원(현 3만원)으로 인상하고 근속수당 가산금의 경우 근속년차를 5개로 구분해 5~13만원까지 지급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 요구

사안이다.

근속수당이 합리적이지 못해 해를 거듭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커지고, 비정규직 가운데 방학 중 근무하지 않은 직종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의 경우 급여가 최저임금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조는 "말로는 교육 가족이라고 하지만 함께 일하는 교사, 행정공무원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 임금은 60%대에 불과하다"며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 중 교육 분야가 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 중 비근무자는 1년 차 연봉이 1900만원, 방학 중 근무자도 2350만원에 그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교섭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도 이날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현장의 뿌리 깊은 차별에 저항하고 임금교섭 승리, 교육공무직제 쟁취를 위해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 쉼터대회에 참가할 것"이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 전국 시·도 지부의 교섭 상대는 각 시·도 교육감이지만, 동일 업무에도 시·도별 교섭결과에 따라 상이한 임금체계가 발생하면서 노조는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 가결에도 오는 8일과 15일 중앙노동위 조정 기일이 잡혀있어 이 기간 극적 교섭 타결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어린이집 CCTV 관리실태 점검 5일 광주시 북구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중흥어린이집에서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북구는 아동안전실태 점검의 하나로 오는 11월말까지 어린이집 35곳을 대상으로 CC-TV 관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

시험출제 오류·생기부 정정 등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도 오는 15일까지 실명 공개돼 교육 현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일 정주시 문의민 옛 대동경 별장인 전남대 별관 회의실에서 감사협의회를 열었다.

전국 감사관들은 일차적으로 오는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와 산하기관들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2013년부터 감사가 완료된 올해 감사 결과까지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을 상세하게 알리기로 했다. 그동안 전남교육청을 포함 일부 교육청은 감사 대상 학교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내용 등을 실명

으로 공개해왔으나 광주를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공표하지 학교명은 비공개로 해왔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금의 사적 사용 등 불투명한 유치원 회계 운영이 문제였다면, 일선 학교 감사 결과는 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학부모에게 민감한 이슈를 망라하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시험 문제 재출제, 서술형 평가 부적절, 출제 오류, 학생부 자율·동아리·진로 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사안이다.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전환 이후 시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유치원과 교행평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권위, 교통사업자 시각장애인 안내 보조 법령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 안내 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관해서만 규정한다.

다.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규정하는 별도 근거는 없다.

코레일과 인천공항은 각각 장애인·노약자 도우미와 도움 요청 전용 전화를 두는 등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인권위와 협의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법령에 따른 서비스가 아닌 만큼 추후 사업에 상황 따라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8 달뜨기 05:05
해질 17:34 달짐 17:02

뿌연 하늘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다.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면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면바다(서)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 생활지수

보통	뇌졸중	보통	나쁨
감기	미세먼지		

◇ 주간 날씨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날씨	☁	☁	☁	☀	☀	☀	☀
시간	11/17	11/17	11/16	8/18	8/18	7/18	7/18

미세먼지 다시 기승...내일까지 '나쁨'

기온이 평년수준으로 회복하자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는 대기가 정체로 인해 오염물질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광주의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81~150 $\mu\text{g}/\text{m}^3$ 분포를 보이며 '나쁨' 단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석동 97 $\mu\text{g}/\text{m}^3$ ▲농성동 92 $\mu\text{g}/\text{m}^3$ ▲두암동 90 $\mu\text{g}/\text{m}^3$ ▲주월동 87 $\mu\text{g}/\text{m}^3$ ▲송정동

74 $\mu\text{g}/\text{m}^3$ ▲오선동 65 $\mu\text{g}/\text{m}^3$ 등이었다. 또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또한 나쁨(36~75 $\mu\text{g}/\text{m}^3$) 단계로 나타났다. ▲농성동 71 $\mu\text{g}/\text{m}^3$ ▲주월동 71 $\mu\text{g}/\text{m}^3$ ▲서석동 70 $\mu\text{g}/\text{m}^3$ ▲두암동 59 $\mu\text{g}/\text{m}^3$ ▲오선동 52 $\mu\text{g}/\text{m}^3$ 등을 기록하는 등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관측됐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대륙에서 타고 내려온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뒤섞여있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통신대에 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문 연다

한약자원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역할을 할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가 통신대에 문을 연다.

통신대는 오는 7일 오후 3시 한국한의학회 학원원 전남센터인 '한약자원연구센터'의 개소식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한약자원연구센터'는 통신대 내 부지 1만6361.47 m^2 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국비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188억원을 투입했다. 통신대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센터에는 30여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며 한약 자원을 활용한 연구 사업을 수행한다.

한약자원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 한약자원 유효성 근거 확보와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약자원 연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한약자원 확보와 활용에 주력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9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 첫째. 한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